통합파 "이달 중 통합전대"…반대파 "개혁신당 개문발차"

국민의당 통합 내홍 악화일로

통추위 당명 공모 등 합당 준비 박차

전자사전투표후 28일 전당대회 검토

반대파 "보수야합 정당 탄생 막겠다"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두고 국민의당 내홍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통합찬성파는 "1월 중 통합 전당대회를 열겠다"면서 당내반발을 잠재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반대파에선 "보수 야합만은 안 된다"며 개문발차식 창당까지 언급하는 등 대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안 대표 측의 전대 강행과 관련, 익명을 요구한 통합반대파 측 한 의원은 "우리나라 정당사도 모르는 정치 아마추어들"이라며 "양당 합당 관련 안건을 다루는 전대가 정상적으로 치러지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양측 신경전도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추진협의체'(통추협)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정강·정책·당헌·당규 제정을 위한 기초 소위를 통추협 산하에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추위는 또 양당 전당대회에서 통합안건이 의결되는 즉시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를 출범시키는 등 합당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통추위는 또한 국민-바른 통합정당의 가칭을 '통합개혁신당'으로 명명했으며, 이달 중 국민공모 방식으로 당명을 정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합당에 대한 반발 속에서도 합당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통합파 측이 이달 25일부터 공인인증방식을 적용한 전자사전투표를 진행한 뒤, 28일에 전당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전당원투표를 통해 당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확인됐다"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신당을 2월에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1월 안에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에 맞서 통합반대파 의원들에게서는 "전당대회 자체가 무산될 것", "통합 강행시 개문발차식 창당을 할 것"이라는 강한 발언이 쏟아져나왔다.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바른정당과의 정체성 차이를 강조하며 양당 합당 불가론도 터져나왔다.

이날 통합반대파 의원들은 정례회동을 갖고 "정체성이 다른 보수야합 정당은 탄생하더라도 반드시 분당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대파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조배숙 의원은 "지방선거 전에 정체성과 지지층이 다른 정당이 합당된다 해도, 정체성과 지지층 차이로 총선 전 분당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안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 3명의 당 대표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남북대결적 시각을 노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통합불가론을 재차 주장했다.

최경환 의원 역시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양당의 정체성 차이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합당을 진행한다면 우리는 개혁신당 창당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KBS라디오에 나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아직 통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 대표의 생각이 옳다"고 통합불가론을 펴면서 "설사 원내교섭단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원 수로 출발하더라도, 즉 '개문발차'를 하더라도 결국은 (의원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우에 따라선 원내 교섭단체의석 확보 전이라도 신당창당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며 통합 찬성파에 압박을 가한 것이다.

바른정당과의 합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전당대회를 관장하는 이상돈 의원 역시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회의에서 통합찬성파 측의 합당 추진 움직임에 대해 "맹목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지금 바른정당 현역의원 중에서 그나마 경쟁력 있는 김세연, 이학재 의원이 이탈(탈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우리가 합당을 할 만한 실체가 있는가에 대해서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문제는 맹목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게 안 보이는 것이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민의당 안철수(오른쪽) 대표가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의 '먼산 화법'…"중재안은 처음 듣는 얘기"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바른정당과 통합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8일 바른정당과 대북정책 등을 중심으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당내 중립파 의원들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단칼에 잘랐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핵문제나 미사일 도발이 심각한 와중에 우리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우리가 미래에 달성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다 보면 많은 공통점과 접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의 '통합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결심한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유 대표가 국민의당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고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 대표는 대북정책에서 타협하지 않겠다는데, 그러면 안 대표가 양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도대체 뭘 양보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햇볕정책을 강령에 넣을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박주선 의원을 비롯한 중립파 의원들이 '안 대표의 조기사퇴 및 공정한 전대 개최'를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중재안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무슨 중재를 하고 협상을 하는지 들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안 대표의 답변은 질문자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일일이 답할 가치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명 '먼산(?) 대화법'으로 일부 정치인들이 애용(?)하는 답변 방법이긴 하나 소통부재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승민 "국민의당과 통합 최종 결심 선 것 아니다"

잇단 통합 배치 발언 배경 관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또다시 '딴지'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이 같은 유 대표의 발언은 통합 파트너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적극적 통합 노력과는 배치(背馳)되는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당과 통합에 대해 '최종 결심이 서지 않았다'고 답한 배경에 대해 "당연한 얘기 아니겠느냐. 최종적으로 결정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바른정당은 9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를 다시 안건에 올려 논의키로 했다. 앞서 바른정당은 수차례 의총을 통해 통합과 관련해 만장일치 합의를 본 바 있다.

또, 유 대표는 통합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안보정책 차이와 관련해서도 "안보위기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안보위기 해법에 대한 생각이 같은 정당과 (통합) 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유 대표의 이날 발언을 두고, 그가 통합 반대쪽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통합논의 과정에서 당 정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당내 여론을 고려,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통합 협상 과정에서 우위에 서려는 전략적 발언이라는 해석이 우세한 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국민-바른정당 통합 필요…안철수 반대파 설득 노력 없어"

국민의당 손학규〈사진〉 상임고문은 8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추진에 대해 "국민의당이 제3당 역할을 하기 위해 몸집을 불리려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필요하다"면서도 안철수 대표의 행보에 대해 "사람을 중시해야 하는데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고, 호남을 존중해야 하는데 깊은 존중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손 고문은 이날 "양극 정치를 배제하고 중도개혁적인 정치가 이뤄져야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좌우통합이자 동서통합으로서 한국정치가 극단의 분열정치를 벗어나는 기초"라고 말했다.

손 고문은 당내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너무 잘못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선언 후 의원총회에도 안 가고 반대파를 설득하는 노력이 없었다"며 "나도 안 대표를 귀국 후 한 번 만난 이후에 한 번도 전화통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그냥 독단과 독선으로 가는데 호남민은 통합 반대 여론이 점점 심해지니 호남 중진들의 반대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안 대표가 호남을 안고 가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 내가 양보할 것이 뭔지를 찾아서 적극 설득해야 하고, 분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당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통합 논의가 많이 와있기 때문에 통합은 기정사실로 하고 가야 한다"며 "지금 무산되면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으로 흡수되고, 국민의당 많은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되거나 '이중대'가 된다. 이 경우 또 다시 양극정치, 분열의 정치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